

1번

대립하는 상황의 해결책으로 제시문 가는 설득, 나는 다수결, 다는 위협을 들고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와 나,다의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곧 가의 경우 복종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립하는 쌍방향의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3가지 설득의 수단을 통해 대립 상황의 해결을 추구하는 반면 나, 다의 경우 대등하지 못한 관계가 형성되어 복종으로 대립 상황의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와 다의 공통점은 대립하는 양자 가운데 한 쪽은 힘이 강하고 한 쪽은 힘이 약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 때 나에서 힘은 사람의 숫자, 즉 다수이나 소수이나를 말하는 것이며 다에서의 힘은 그야말로 강력한 물리적 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힘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나와 다 사이에서 등장하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나에서의 복종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즉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수자에게도 발언권이 주어지며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다에서의 복종은 약자인 조선 국왕은 칸에게 일체의 대답을 할 수 없는 반어법적 상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약자에게는 일체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고 강자에게만 발언권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칸이 조선 국왕에게 까닭을 말하라, 너는 대답하라 하는 것은 발언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어법으로 일체 조선 국왕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아야 한다. 칸은 스스로 따르는 뜻을 보이라는 말을 통해 조선 국왕에게 일방향적인 복종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783자)

라에서 나타난 텔레비전, 일간 신문, 온라인 매체 간의 신뢰도 및 이용도 간의 차이를 성품의 세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분류하기 위해서는 우선 라에서 신뢰도가 높을수록 이용도가 높다는 비례 관계를 짚어낼 필요가 있다.

설득의 세 가지 수단 가운데 성품은 가장 사람을 믿게 만드는 요소임을 가는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뢰도를 살펴보면 텔레비전은 6.6, 일간신문은 5.8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데 비해 온라인 매체는 3.2로 다른 두 매체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곧 온라인 매체가 연결가의 성품을 다른 두 매체에 비해 적게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성품이 가장 큰 변수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신뢰도와 이용도는 서로 비례하므로 성품은 이용도에도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된다. 그런데, 성품이 일간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낮은 것으로 평가 되는 온라인 매체는 이용도 차이가 일간 신문과 고작 0.3 밖에 나지 않고 있다. 또한 일간 신문과 텔레비전 간의 사이는 34.7과 23.5의 차이로 자그마치 12.2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추론해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온라인 매체 및 TV에 비해 일간 신문이 갖추지 못하고 있는 성품의 3가지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일이다. 그것은 곧 청중을 특정한 감정 상태로 만드는 능력에 대한 부재가 될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텔레비전과 온라인 매체는 상대적으로 활자매체의 한계를 지닌 일간신문에 비해 생동감 있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청중을 특정한 감정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이용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성품의 세 가지 수단 가운데 청중을 특정한 감정 상태로 만드는 능력이라 볼 수 있다. 세 가지 수단 가운데 마지막인 논리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TV와 일간신문에 비해 온라인 매체가 갖추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나, 논리력이 신뢰도 및 이용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1,000자)

1번

제시문 가,나,다는 모두 변증법적으로 반복되는 창조와 파괴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는 글이다. 그러나 가와 나,다 간에는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제시문 가는 창조와 파괴를 영원히 순환하는 원환의 고리로 생각하는 반면 제시문 나,다는 일직선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에 의하면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영원히 순환하고 자기창조와 자기파괴를 통해서 항상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죽는 일을 반복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시문 나와 다에서 세계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

제시문 나에서 창조와 파괴는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의 요체이다. 즉 자본가들은 창조적 파괴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것을 파괴해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며 이는 끝없이 이어지는 일이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주체, 즉 부르주아의 행동은 제시문 다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혁명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의 권력을 휘어잡고 오직 금전수수관계라는 유일한 지배체계를 만들어 놓은 뒤 자본주의를 끝없이 발전시키려 노력한다. 하지만 이에 의해 착취당하는 프롤레타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혁명을 일으켜 자본가들의 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바로 다의 논지이다. 즉 나와 다의 가장 큰 차이는 창조와 파괴가 끊임 없이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되느냐, 아니면 언젠가는 혁명에 의해 종결 되는 것으로 이해 되는가 이다. 다에서 프롤레타리아는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스스로의 지배 계층으로써의 인식을 지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되어 더 이상 파괴할 것이 남아 있지 않게 되며 따라서 창조의 과정도 자연히 사라진다. (838자)

라의 표를 살펴보면 그림 1은 1974년 이전의 각 계층별 가계소득, 2는 1974년 이후의 그것이며 3은 1974년을 기점으로 역전되는 시간당 실질임금과 시간당 생산량의 두 가지 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자본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언급하며 끊임없이 오래된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며 자본주의가 끝 없이 발전함을 역설하고 있다. 나의 입장에서 라를 해석한다면, 1974년 이전의 상황은 부르주아가 이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으로 표1에서 부르주아의 소득이 가장 낮은 것과 표 3에서 부르주아의 이익에 해당하는 시간당 생산량이 프롤레타리아의 이득에 해당하는 시간당 실질 임금보다 낮았다. 따라서 1974년을 기준으로 부르주아는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게 되며 이를 기점으로 표 3에서 부르주아의 이익은 시간당 실질 임금을 앞서기 시작하여 갈수록 그 기울기의 차이가 가파라지고 있으며 표 2와 같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제시문 나는 이를 앞으로도 영원히 기울기의 차이가 커지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반면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창조와 파괴는 언젠가 종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며 이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한 것이 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가장 큰 원인은 부르주아의 착취에 있는데 이 과정을 1974년 이후의 표 2에 대입해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면서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역시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에 해당하는 시간당 실질임금 함수의 기울기가 부르주아의 이익에 해당하는 시간당 생산량 함수의 기울기보다 훨씬 작아지면서 그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계속된다면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는 언젠가 혁명이 일어나 이 기울기의 차이는 사라질 것으로 추론 가능하며, 이후 부자와 빈자의 차이 역시 없어지고 1974년에 일어났던 일과 같은 것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948자)

1번

제시문 가,나,다가 공공성 실현의 주체를 서로 달리 해석하는 이유는 이들이 공공성에 대해 내리는 정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제시문 가,나의 경우에 공공성이란 공중의 이익으로 정의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가에서는 국민의 안녕, 나에서는 말 그대로 공중의 이익을 의미한다. 즉 가와 나는 공동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공공성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의 경우 공동체를 허구체라 말하며 사실 공동체의 이익이란 개인의 이익의 합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다는 가,나와 공공성 실현의 정의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그렇기에 다에서는 공공성 실현의 주체는 개인이 되는 것이다.

이후 가와 나는 똑같이 공동체의 이익을 공공성 실현으로 보는 와중에 각 주체를 국가와 시민사회로 달리 해석하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가의 경우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만이며 다른 모든 무리들은 이성을 갖추지 못한다. 정부는 그 이성으로 공공사업을 실행하여 공동체, 즉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 역할은 공적 영역에 한정된다고 제시문 나에 지적한다. 제시문 나에서 시민사회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은 경제적 재생산의 문제, 즉 본래 사적 영역의 문제였다가 공적인 것으로 연관되기 시작한 것을 말한다. 이 영역에 대해 정부에 맞서 시민사회는 공론장을 장소로 삼아 역시 이성을 매개로 정부와 논쟁을 벌여 공중의 이익을 쟁취한다. 즉 가와 나에서 각각 공공성 실현 주체를 정부와 시민사회로 달리 해석하는 이유는 그들이 정의내리고 있는 공적 영역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808자)

제시문 가,나,다 가운데 라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적당한 입장은 나의 입장이라 볼 수 있다. 우선 벌목의 문제는 경제적 재생산의 문제로 본래 사적 영역에 속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벌목이 남발될 경우 모두의 비극으로 귀결될 수 있기에 공적인 의미를 추가로 얻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영역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제시문 나에 의하면 시민사회 뿐이므로 시민사회에 의한 해결책이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며 공적 영역에만 국한하여 이를 다룰 수 있는 제시문 가의 정부에 의한 해결책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모두 나무를 무한히 벨 경우에 다의 주장처럼 모두의 행복이 극대화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다의 입장도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입장을 선택할 경우 시민사회가 공론장에서 서로 논의를 하는 것처럼 마을 주민들도 마을 자치회에서 서로 논의를 해야 한다. 마을 자치회는 주어진 세 가지 조건 중 셋째 조건에 따라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 열려야 한다. 또한 그 지난 주의 벌목량은 마을 자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마을 자치회에서는 그 지난 주의 벌목량을 바탕으로 적게 벤 사람들은 많이 베도록, 많이 벤 사람들은 적게 베도록 그 다음 주의 벌목량을 할당해 주어야 하며 마을 자치회가 열려 총 벌목량이 보고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타인의 벌목량을 알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하여 첫째 조건과 둘째 조건 역시 만족시키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가 굳이 행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공론장에서 시민사회가 이성을 매개로 국가로부터 이권을 쟁취하였듯이 마을 주민들도 마을 자치회에서 자신들의 이성을 매개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면 된다. 이 모두를 종합하여 세 가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919자)

정부 입장의 답안(간추림)

제시문 가,나,다 가운데 라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적당한 입장은 가의 입장이라 볼 수 있다. 가의 정부는 이성으로 의롭지 못한 무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만일 어떤 개인의 다의 공리주의를 내세워 나무를 최대한으로 많이 베는 일을 한다면 이는 가에서 말하는 무도한 자에 해당하는 개인이다. 가의 정부는 이를 이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나의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가의 정부는 이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마을의 벌목의 문제 역시 정부가 필요하며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건에 따라 1주일 간격으로 행정 담당관이 이 마을로 파견을 나가야 한다. 행정 담당관은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마을 주민들에게 파견 나갈 때마다 다음 주의 벌목량을 이성에 따라 판단해 주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그 이후 행정 담당관이 다시 파견 나왔을 때에 지난 주의 벌목량이 행정 담당관에게 보고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벌목량은 이성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세 가지 조건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마을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게 된다.

1번

제시문 가,나,다는 모두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글이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는 가,다는 인간의 죽음에 관한 태도를, 나는 인간이 아닌 동물, 즉 고릴라의 죽음에 관한 태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죽음을 삶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가 및, 인간이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는 가능하나 이를 기피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다와 달리, 제시문 나의 고릴라의 모습에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찾을 수가 없다. 이들은 죽은 고릴라인 ‘마체사’로부터 끊임없이 모종의 반응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들은 마체사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다와 나의 가장 큰 차이는 죽음 개념의 인식 여부라 볼 수 있다.

이후 가와 다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그 근본적 원인을 찾으면 우선 가의 인간은 삶의 본능을 넘어서 죽음을 신성시하고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의 인간은 삶의 본능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와 다의 매장 풍습의 차이도 달라지는데 가의 경우 매장은 죽은 자를 기리며 꼭 붙들어 놓고자 하는 목적에서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지는 일이지만 다의 경우 매장은 추악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시체를 빨리 치워 버리기 위한 일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여기서 가와 다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데 가에서는 이를 통해 죽은 자와 기꺼이 함께 하고자 하지만 다에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아예 무조건 기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을 종합하면, 가,다와 나 간의 비교로부터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의 죽음에 대한 생각 가능여부의 차이를, 가와 다의 비교로부터는 서로 다른 인간관으로부터 비롯되는 죽음에 대한 태도 및 망자에 대한 행위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914자)

라의 실험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배설물, 화장실 등 상대적으로 더러운 개념에 노출된 실험 참가자들일수록,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적게 완성하게 된다. 이를 가와 다의 입장을 통해 각각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의 경우 죽음은 기꺼이 함께 하고자 하는 대상이며 신성하고 초월적인 것이다. 따라서 친구라는 단어에 대비되는 추악한 의미인 똥이라는 단어를 보고 좋은 의미를 가진 죽음을 완성하는 것은 어렵다. 당연히 죽음은 친구와 같은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화장실과 복도 간에서도, 상대적으로 더러운 이미지를 풍기는 화장실에 갔다 온 뒤 친근한 의미인 죽음을 연상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의 경우 죽음은 철저한 기피의 대상이며 부패와 악취와 연관되어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똥을 보면 이들은 죽음을 연상하게 되고 삶에 본능에 사로잡혀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기피하게 되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완성하기 어려워진다.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로 악취와 관련이 있는 이미지기 때문에 이를 보고 죽음을 떠올리기 힘들다.

이 때 가와 다의 실험결과에 의한 각각의 해석 가운데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을 찾자면 다에 의한 해석이 보다 정확하다. 그 이유는 화장실과 복도 간의 차이 및 똥과 친구, 뱃의 차이로부터 알 수 있다. 똥과 친구, 뱃은 상대적으로 상반의 관계를 보이기에 가의 입장에서 죽음과 기꺼이 함께 하고자 할 때 친구와 뱃과 같은 친근한 이미지로부터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다만 화장실과 멀리 떨어진 복도라는 이유만으로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더 많이 완성시켰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 된다. 복도는 중립적인 의미이며 여기에 친근함이나 함께 할 이유를 느껴야 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다에 의한 해석의 경우 복도를 적어도 기피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화장실보다 더 연상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아니다.(953자)

1번

제시문 가,나,다는 모두 과학적 탐구에 있어서 인과론적 모델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제시문 가,나,다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과학적 탐구 전체가 아니라 과학적 탐구 가운데 한 가지 모델인 인과론적 모델인 것이다. 가에서는 인과론의 존재가능성을 부정하고, 나에서는 인과론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다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해 인간이 온전히 알 수 없는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는 나,다와 달리 인과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가에서 순서가 서로 앞뒤에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그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고집이다. 하지만 나와 다에서는 인과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인과관계의 필요성 및 인식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세부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 나에서 인과관계는 고전적 모델로 유용하였을지 몰라도 현대에 와서는 페타바이트라는 데이터 때문에 전혀 필요없는 것이 된다. 페타바이트라는 데이터 덕분에 오늘날의 우리는 과학적 탐구 모델로써 상관관계만으로도 충분하며 상관관계에 관한 인식은 가능한 것이 된다. 단 충분한 표본의 숫자만 주어지면 된다는 조건이 딸릴 뿐이다. 반면 다의 경우 인식 자체의 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잭 혹은 루이 14세의 예시를 들어 하나의 사건에는 너무나도 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모두 파악하기 전까지는 인과를 단언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무한 가지에 가까운 변인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것이 다의 요지이다. 즉 나와 다를 정확히 비교하면 나에서는 인과론의 인지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필요성을 부정하며 다에서는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인지가능성을 부정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932자)

2번

라의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는 비례가 하나 있는데, 이를 표 1에서 살펴보면 건강상태 하인 부분에서 교육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나빠야 하는데, 고졸보다 대학 이상에서 18.4대 22.7로 건강 상태 하인 비율이 높다는 예외가 드러나고 있다.

이후 소득 수준이라는 새로운 변인을 추가하여 소득수준 상 중 하에 의한 교육수준과 건강상태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예외가 소득 수준 중, 하일 때 사라졌으나 소득 수준 상일 때는 오히려 4.3에서 9라는 두 배 이상의 격차로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 수준 중일 때 건강 상태 중인 비율이 고졸이 가장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졸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추가적인 예외가 또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이 연구 전체를 나의 입장을 통해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나에서는 인과관계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음을 말하며, 상관관계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오늘날에는 페타바이트라는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관점에서 이 연구는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보다는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간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연구인 것으로 평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 때 이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총숫자는 1,134명으로 페타바이트는 커녕 KB(킬로바이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가 나타나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일이며, 이 연구는 그 때문에 충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나누었을 때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제2의 예외는 표본 숫자가 고작 13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페타바이트를 강조하는 나의 관점에서 표본 13명에 의한 결과는 결코 유의미한 통계치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나의 관점에서 이러한 예외를 해결하고 연구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숫자를 최대한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940자)

[2]이 연구 전체를 다의 관점을 통해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다에서는 하나의 사건에는 무한한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원인을 모두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알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다의 관점에서 이 연구를 살펴보면, 이 연구는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과 건강 상태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수준이라는 두 번째 변인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해결되지는커녕 오히려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또다른 예외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 연구가 다의 관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연구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가 다의 관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작 2가지, 즉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라는 변인으로 인과론을 찾으려 하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제3, 제4의 변수들과 같은 수많은 변수, 즉 원인들을 추가해 가며, 그 추가적 변수들이 무한한 수준으로 추가되어야만 예외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922자)

1번

제시문 가와 나는 낭비의 유용성 및 제거가능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이는 각 제시문이 낭비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가로부터 기인한다. 가에서 낭비는 도락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인간이 기꺼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으로 낚시, 당구, 산보 등과 같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 인간에게 매우 가치있는 문학, 철학, 과학 등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낭비는 매우 유용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도락 정신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낭비는 제거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된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 낭비는 벽돌공의 작업 속도를 늦추게 하고 그 피로도를 늘리게 하는 매우 쓸모없는 것으로 정의 내려진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주인공인 프랭크 길브레스는 이 낭비를 과학적 관리법을 통해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길브레스가 과학적으로 이를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가에서 어쩔 수 없는 낭비를 나에서는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말한다.

다의 원근 단축은 쓸모없는 기억을 낭비로 정의하며 이를 망각, 즉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때 망각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가의 입장에서 평가하면 가에서는 낭비는 인간에게 문학, 과학, 철학에 심지어 생명 보존의 형태가 되는 매우 훌륭한 것인데 비해 다에서는 쓸모없는 기억이라 정의내리고 있으므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며, 낭비를 망각한다는 것은 곧 제거한다는 의미인데 가에서는 낭비는 제거될 수도 없으며 제거하여서도 안 되는 것으로 역시 서로 불일치한 의견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반면 나의 입장에서는 서로 같이 낭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낭비를 제거할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다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겠으나 이는 일견 타당할 뿐 온전히 타당한 견해가 아니다. 나에서 낭비는 과학적으로 제거되는 것임에 비해서 다에서의 낭비는 변칙적으로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927자)

라의 실험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개 시간과 사진을 정확히 인지하는 비율이 비례하고 사진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정확하게 인지하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두 가지 비례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두 가지 비례 가운데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진의 희미한 정도로 그 근거는 시간은 35초에서 133초로 늘어날 때에 희미한 정도가 상일 경우 고작 0.1 증가하는 데 비해 희미한 정도에 의한 격차는 매우 크기 때문임을 들 수 있다.

길브레스가 채용담당관을 도와 경쟁률이 매우 높은 이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우수한 인재를 판별하기 위한 방법을 나의 과학적 관리법과 라의 실험결과를 결합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어진 조건으로 먼저 서류심사가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 회사는 매우 경쟁률이 높으므로 매우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것이며 이는 채용담당관에게 모두 판별하는 것이 고역이다. 따라서 서류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채용담당관이 2차 면접심사에서 보다 시간을 길게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편하게 심층 면접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진을 보는 것과 사람을 보는 것의 이치가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하게 시간을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사진의 선명한 정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프로젝터가 꺼지기 때문에 서류심사도, 면접심사도 까다롭게 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이에 더하여 길브레스의 과학적 관리법의 요소를 채워야 하는데 이를 테면 길브레스의 경우 비계를 전담하는 일만 하는 노동자를 따로 두어 낭비를 제거하고 효율을 높였으므로 이 회사의 채용담당관들 역시 지원자들의 각 요소를 판별하는 데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팀을 따로 꾸려 분업화하여 효율을 올려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한다는 것의 이치는 채용담당관의 입장을 벽돌공의 입장에 대입하여 길브레스가 벽돌공을 도운 모든 것들을 채용담당관에게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956자)

1번

세 제시문은 모두 한 사회에 새로움이 부상할 때 다수가 수행하는 역할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 세 제시문은 우선 새로움에 대한 다수의 보편화 및 절대화 인정 여부를 통해 가와 나, 다로 구분될 수 있으며 다수에 의한 새로움의 창안 가능성 여부에 의해 나와 다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가의 논지를 정리해 보면 새로운 것을 보편화, 절대화해서 받아들이는 다수는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하므로 바람직한 다수라면 새로운 것을 보편화, 절대화하지 말아야 한다. 가는 이러한 예로 새로움의 일종인 새로운 종교를 모두 받아들인 북유럽의 다수들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새로운 것인 걸작이 숭앙과 존경의 대상이 되며 다에서는 새로운 것이 그 이전의 것을 대체하고 잊게 만들어 보편화되기 때문에 가와는 논지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나의 경우 그 논지를 정리하자면 다수는 새로움을 존경하여 이를 모방하고 전승시키는 주체이다. 아류는 결코 걸작이 될 수 없으나 걸작을 따라하며 걸작과 또 다른 걸작 간을 매개하는데 여기서 걸작은 곧 새로움으로 혼자서 완성되는 독창의 세계이다. 그렇기에 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곧 예술사에서 아류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제시문 다에서도 비슷한 요체로 드러난다.

다에서의 새로움에 관한 다수의 역할에 관한 논지는 새로움을 보편화하고 이를 모방하고 전승하는 데 그칠 뿐 아니라 창안까지 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이다. 다에서 다수는 수많은 두뇌 회로를 가진 하나의 집단적인 성찰 주체로 모방을 통한 연대에 의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만들어 낸 새로움은 문자의 형태로 고정되어 다음 세대로 전승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창안 과정에서 대체와 축적이 일어나는데 이들 가운데 대체란 그 이전의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것이 기존의 것을 밀어내고 보편화되는 것을 의미한다.(921자)

2번

라의 표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곡1~곡10은 모두 신곡이므로 새로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때 개별형 사이트의 다운로드 수가 곡의 질을 반영한다는 전제가 우선하고 있다. 이 때 그림 1의 집단형 사이트, 즉 다수의 다운로드 횟수를 보면 곡1에서 곡10으로 갈수록 다운로드 횟수가 많아지지만 정확한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그림 2의 순위 역시 정확한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변수란 이를테면 그림 2에서 집단 1이 더 질이 좋은 곡9보다 더 질이 나쁜 곡 8을 다운로드 받은 순위가 더 높다는 것과 같은 예시이다. 이러한 예시들은 그림 1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이를테면 1에서 집단형 사이트 3은 질이 더 나쁜 곡인 곡8을 질이 더 좋은 곡인 곡9보다 더 많이 다운로드 받았다.

가에서는 새로움을 보편화, 절대화하여 받아들이는 다수는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하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이는 이 실험결과의 해석으로 미루어 볼 때 옳지 못한 주장으로 평가된다. 우선 라를 살펴보면 다수의 선택은 결코 저급하지 않다. 다수가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횟수, 및 다수가 다운로드 받은 순위가 가장 높은 곡 10은 실제로도 질이 가장 좋은 곡이다. 이는 다수는 스스로 수용할 새로움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이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나아가 이들의 선택은 질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앞서 언급한 그림 2의 집단형 사이트 다운로드 순위에서 질이 좋은 곡9보다 질이 낮은 곡8이 집단형 사이트 1에 의해서 다운로드 횟수가 더 적은 것과 같은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그림 2이 이 사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림 1과 그림 2 전체에 걸쳐 수십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다수는 스스로 새로움의 질을 판단하는 와중에서도 다양성을 잃지 않은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와중에서도 그들이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1,003자)

1번

제시문 가,나,다의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 주제는 아름다움이다. 가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매화의 아름다움을 옹호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부석사 무량수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는 우아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아함은 곧 아름다움의 일종이므로 세 제시문의 공통 주제는 아름다움이다.

하지만 이들 세 제시문은 우선 아름다움에 있어서 인간의 계산 및 계획의 개입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가와 나,다 간의 의견의 차이를 보인다. 가의 논지는 돈을 목적으로 자연에 손을 대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매화에 사람의 손이 닿으며 금전을 목적으로 이를 휘어지게 하고, 성기게 하고, 틀어지게 하는 이들에 대해 우둔하다고 힐난하는 필자의 말로부터 이를 알 수 있다. 반면 나와 다에서는 인간의 계산이 개입된 아름다움을 인정한다. 나에서 부석사 무량수전은 신라나 고려 사람들의 계산이 개입된 작품이며 다에서의 우아함은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들의 계산의 산물이다.

하지만 아름다움에 있어서 인간의 계산의 개입을 인정하는 나와 다 사이에서도 서로 그 의견의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바로 아름다움에 있어서 인간의 계산의 개입이 드러나는가, 혹은 숨겨지는가가 그것이다. 다에서는 스프레차투라, 즉 아무런 티도 안 내는 계산과 연기가 진정한 우아함, 즉 아름다움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상반되게 나의 경우 부석사 무량수전의 구조가 주변의 산의 능선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인간의 손길, 즉 계산이 드러나면서 더더욱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가와 나,다의 비교로 아름다움에 있어서의 인간의 계산 및 계획의 개입에 대한 견해 차이를, 나와 다의 비교로 그 개입된 계산 혹은 계획이 겉으로 드러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한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이다.(908자)

제시문 라의 그림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문 가의 주장은 금전 등을 목적으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이들은 우둔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옳지 못하다.

첫째, 경제적 관점으로부터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해서 태어난 것인데, 원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경제적 값어치가 크게 매겨진다. 가에서는 매화에 인간의 계산이 개입됨으로써 매화가 시들어 죽어가 본래의 값어치조차 못 하고 아름다움을 상실함을 개탄하고 있지만 무생물인 다이아몬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인간의 손길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부가시키면서도 더더욱 아름다워지고 있다.

둘째, 교훈적 관점으로부터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은 세공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이는 뼈를 깎는 아픔이나 마찬가지로 지이다. 이 과정을 거쳐 태어난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자연스러운 것만 아름답다고 하는 가의 주장은 옳지 못하다.

셋째, 제시문 나 의 관점으로부터 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비록 인간의 계산의 산물이지만 자연물인 물방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자연과 인간의 계산간의 조화를 의미한다. 부석사 무량수전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물방울 다이아몬드 역시 아름다운 것이 된다. 따라서 가의 주장은 옳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의 관점으로부터 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비록 계산의 산물이지만 마치 물방울인 것처럼 아무런 티도 안 내 스프레차투라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것만이 아름답다는 가의 관점은 가장 계산적인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답다는 역설을 가진 다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920자)

1번

제시문 가-2는 현실주의적 낙관성을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은 낙관적 사유성향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로 현실주의적 낙관성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점검이다. 둘째는 잠재적 기회 및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낙관론자는 현실주의적 낙관론자가 되며 그렇지 못한 자는 비현실적 낙관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돈 키호테와 다의 여자를 비교분석 해 보면 나의 돈 키호테는 비현실적 낙관론자이며 다의 여자는 현실주의적 낙관론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나의 돈키호테는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하는데 자신의 능력이 거인을 쓰러트릴 수 있다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살고 있으니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점검이 없으며 달려갈수록 보이는 풍차를 계속 거인이라 우기고 있으니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산초의 조언을 그저 무시하고만 있으니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였다고도 볼 수 없다. 그 결과 그는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는다.

반면 다의 여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의 실현 가능성을 보고 잠재적인 기회와 변화하는 상황을 재평가하는데 그 이전에 스스로 자신이 박색인 것을 알면서 자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비록 그렇다고 하여도 일등 수모를 불러 호화롭게 단장하면 자신도 다른 여자들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마지막으로 부모 및 형제들과 기꺼이 의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곧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결과 여자는 돈 키호테와 달리 김도령과 의혼하게 되는 행복한 결말을 맞고 자신의 신념, 즉 결혼을 이룰 수 있게 된다.(901자)

2번

제시문 라의 표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현실성이 있고 둘째로 낙관성이 있다. 현실성의 경우 현실성이 높아질수록 시험 성적이 높아지지만 낙관성의 경우 현실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서만 낙관성이 높을 때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 오히려 현실성 없는 낙관성을 가지게 될 경우 2점이라는 최하의 점수를 맞게 된다. 이로부터 두 변수 가운데 시험 성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현실성이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1을 평가할 수 있는데 가-1에는 긍정적 환상이라는 것이 소개되고 있다. 긍정적 환상은 곧 낙관성으로써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장밋빛 안정을 쓴 채 미래를 쳐다보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가-1은 긍정적 환상을 많이 품은 사람들이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라의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볼 때 긍정적 환상론자들의 주장은 그릇되었다.

라의 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낙관성은 반드시 자기 능력에 대한 현실적 인식에 기반을 두어야지만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낙관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현실성이 뒷받침 되지 않은 낙관성 자체만으로는 오히려 시험 점수 2점이라는 처참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시문 라는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지 않은 채 미래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을 내세우는 제시문 가-1의 긍정적 환상론자들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즉 제시문 라의 해석결과에 의해 제시문 가-1에서 소개하고 있는 긍정적 환상은 가-1이 스스로 던지고 있는 의문, 즉 우리는 바보의 낙원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의해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객체가 되는 것이다.(901자)

1번

제시문 가,나,다는 모두 공감에 관한 글로 여기서 공감의 정의는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매겨진다.

가의 주체인 아이히만과 나의 주체인 시적 화자는 서로 공감을 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차이를 보일 뿐더러 공감 개념을 아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의 아이히만은 공감을 알지 못하는 채로 그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을 살해하였다. 그는 단순한 기계적 인간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나의 시적 화자의 경우 비둘기에 대해 ‘나는 알고 있는데’ 등의 어구를 반복함으로써 비둘기의 답답함에 스스로의 감정을 이입시켜 그것을 자신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과 비교해서 다의 아킬레우스가 보이는 공감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점을 지적하면 아킬레우스의 공감에 대한 모순적 태도이다. 아킬레우스는 가의 아이히만과 달리 나의 시적 화자처럼 공감 개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가련한 뢰카온에게 공감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점이 환기되지 못한 상태인 포로 뢰카온에 대해 자신을 포함,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그에게 죽음의 동의를 구한다. 뢰카온은 아킬레우스의 이러한 감정을 자기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공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 창을 버리고 항복하는데, 결국 이는 아킬레우스가 공감 개념을 역설적으로 ‘살인의 정당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이히만과 아킬레우스 둘은 동일하게 살해를 저지르고 있지만 그들간에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공감 개념을 아는가, 아니면 모르는가의 차이이다. 즉 기계적인 아이히만과는 달리 아킬레우스는 주체적인 것이다. 또한 시적 화자와 아킬레우스의 공감에 관한 태도를 비교해 볼 경우 둘 다 공감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점은 같지만 시적 화자는 비둘기의 답답함에 공감을 한 데 비해 아킬레우스는 뢰카온의 살고 싶다는 마음에 일체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공감개념을 통해 사람을 살해하는 역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15자)

가의 아이히만은 자신에 의해 학살당할 유대인의 마음을 상상하지 못하였고, 그가 주체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한 유대인 학살로 이어졌다. 즉 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다의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뢰카온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폭력을 사용하여 뢰카온을 죽인다.

라의 워딩턴은 어머니를 살해한 강도를 용서하게 되는데, 이는 그가 주체적으로 그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반면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죽음 역시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상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뢰카온을 죽인다.

즉, 똑같이 상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우스는 폭력을 휘두르는 반면, 워딩턴은 강도를 용서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아킬레우스가 뢰카온의 살고 싶은 마음 상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 따라서 공감은 워딩턴의 경우처럼 폭력을 피해갈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공감은 주체적으로 행해져야만 한다. 주체성 없이 그저 명령받은 대로 유대인을 살해한 아이히만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또한 공감은 상상력을 그 바탕으로 한다. 뢰카온이 비록 아킬레우스에게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으나, 뢰카온이 그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아킬레우스가 죽음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자신도 죽을 것이라 설득하였기 때문임을 생각해 볼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타인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상이며, 이를 통해 주체적으로 폭력을 멀리하려는 시도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공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심지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가짐까지 갖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960자)

[2] 즉, 똑같이 상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우스는 폭력을 휘두르는 반면, 워딩턴은 강도를 용서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아킬레우스가 뢰카온의 살고 싶은 마음 상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감의 힘은 매우 강력하다. 상대방을 공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살인마저 정당화시킬 수 있다. 뢰카온은 아킬레우스에 의해 공감을 받음으로써 스스로의 죽음을 인정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재판에 넘겨진 아이히만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인 경우이다. 뢰카온을 죽인 것에 대하여 아킬레우스를 비판하는 이를 제시문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

즉, 자신이 주체가 되어 상대방을 이용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감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이 때 상상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데에 매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감이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체적으로 원수의 편에서 상상하여 원수를 용서한 워딩턴의 경우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감을 통해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923자)

1번

제시문 가,나,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 때 이들의 논지는 우선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를 인정하는가의 여부를 두고 가와 나,다 간 차이점을 보이며,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가의 여부를 두고 나와 다 두 제시문 간에도 논지의 차이점을 보인다.

제시문 가의 논지 하에서는 나,다와 달리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그에 따르면, 주인의 운명을 타고난 이는 훌륭한 주인 노릇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이를 그대로 해석할 경우 노예의 운명을 타고난 이라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한 노예 노릇을 해야 비로소 행복해진다. 즉 개개인의 행복은 개개인의 처한 상황에 의해 결정되며 타인의 행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나,다의 논지 하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상관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나와 다의 논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이는 곧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는가, 혹은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나의 일화에 따르면, 집을 나서는 남편 때문에 아내는 불행해진다. 이를 일반화하면 한 개인의 행복은 다른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나의 논지는 이렇게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아내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자신의 행복을 남편에 맞서 찾겠다는 의지를 시사하고 있음을 추론 가능하다. 반면 다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공동체란 개인들의 총합이므로 곧 공동체의 행복이란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이다. 따라서, 각 개인들이 행복하면 행복해질수록, 타인들(공동체)의 행복 역시 증진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한 개인의 행동이 전체 구성원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크다면 이는 비록 어떤 개인의 이익을 침해시키는 일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떠나 타인 역시 행복하게 하는 행위가 된다. (1,035자)

2번

표준편차가 행복도의 분포의 넓고 좁음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제시문 라의 도표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B국가군의 경우 각 국가들의 행복도의 산술평균이 높지만, 국가들의 표준편차 역시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이 국가군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응답자들의 행복의 합은 크지만 응답자들 간의 행복도의 격차 역시 큰 것을 의미한다. 즉 행복한 이들이 많이 존재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불행하다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반면 C국가군의 경우 각 국가들의 행복도의 산술평균은 작지만, 국가들의 표준편차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이 국가군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응답자들의 행복의 합은 작을지라도 응답자들 간의 행복도의 격차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즉 행복하다는 이들의 숫자는 B국가군보다 작을지라도 상대적으로 불행하다 느끼는 이들의 숫자는 B국가군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논지는 어떠한 개인이 행복해짐으로써 다른 타인이 불행해지면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행복도의 정도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B와 C 국가군 가운데 나의 입장에서 보다 더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비록 전체 행복도를 나타내는 산술평균의 지표가 낮을지라도 표준편차가 작기에 어떠한 개인의 행복이 다른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C국가군일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반면 나의 논지는 개인의 행복의 합이 커질수록 타인, 즉 공동체의 행복의 합 역시 커진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때 일부 개인의 행복이 침해되는 것에 대하여 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는 곧 행복도의 정도가 넓게 분포되어 있을지라도 전체 국민의 행복도가 높은 국가가 보다 더 행복한 국가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술평균이 높은 B국가군이 산술평균이 낮은 C국가군보다 나의 입장에서 보다 이상적으로 여겨질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산술평균이 높을수록 전체 행복도의 합이 높기 때문이다. (967자)

1번

제시문 나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모두 최근래에 생겨난 신조어(新造語)이며, 동시에 은어(隱語)의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대부분이다. 이 신조어, 은어들은 국어문법의 파괴여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이를테면, 초성체를 사용하거나 국어 맞춤법을 일부러 파괴하는 경우가 등장하는 한편, 한자어나 외래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국어문법의 틀 안에서 신조어를 만드는 경우가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살앙하눈’, ‘어좌요’ 따위의 단어를 예로 들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삼포시대’, ‘신생아남’, ‘알바추노(推奴)’, ‘월급 루팡’ 과 같은 단어의 유형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답안 속에서 이들을 각각 전자, 후자로 정의할 것이다.

가-1의 논지는 사회적 규범의 가치를 높게 두어 이를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두고 있다. 이를 나의 단어들에 적용하면 사회 규범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곧 국어 문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나의 전자의 단어군(群)의 경우 가-1의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국어 문법을 철저히 파괴한 신조어이기 때문이다. 반면 나의 후자의 단어들의 경우 가-1의 입장에서 특별한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비록 신조어이나 국어 문법을 파괴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반면 가-2의 논지는 기존의 사회규범을 깨는 일탈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나의 단어들에 적용하면, 역시 사회 규범의 역할을 하는 것을 국어 문법으로 볼 때, 전자의 단어군에 대해 특별한 비난을 할 이유가 없다. 국어 문법을 파괴하였지만, 이 역시 어떠한 순간에는 긍정적인 일탈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자의 단어군도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후자의 단어군 역시 가-2에서 옹호하고 있는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산물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911자)

제시문 다에서는 사회규범의 한 예로 마리화나 단속에 대한 세 국가의 사례를 들고 있다. 우선 한국의 경우, 마리화나는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다음으로 네덜란드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마리화나에 대하여 관대한 모습을 보였으나 2000년대 이후 보수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 1930년대까지 불법이었던 마리화나가 2012년 이후로 합법화되는 주가 많아지면서 개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이를 일반화하여 정리하자면, 사회규범은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수화될 수도 있고, 개방적으로 변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의 도표를 해석해 보면 A국가의 경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사범고시 응시생의 여성 숫자 및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B국가의 경우 같은 시간(1999년부터 2008년까지)에 여성 비율이 변화한 것이 없다. 이 차이점을 제시문 다를 참조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전제를 필요로 한다. 여성이 법조계에 진출하는 것이 사회 규범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A국가의 사례는 점점 개방되어가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B국가의 사례는 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국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예외 사항이 있는데 A국가의 경우 2002년에서 2003년으로 넘어갈 때에는 오히려 여성 응시자 수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다소 네덜란드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A국가의 경우 이러한 예외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시적으로 여성 응시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더욱 사회 규범이 개방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반면 B국가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응시자 비율이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유지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981자)

1번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강도(強度)순대로 순서를 나열하면 가-라-다-나이다.

가의 경우, 완벽히 합리적인 공평한 관망자의 역할을 하는 일개인이 존재하여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킨다.

라의 경우, 도덕적인 시민 개개인들이 상호협력, 합의의 과정을 통해 공동선(共同善)을 달성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화합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결과로 볼 때 개개인의 욕구가 최대한으로 만족되는 사회로 귀결되는 가의 결과보다는 개인의 힘이 강하다고 보기 힘들다.

다의 경우, 개인이 개인으로써는 이타적일 수 있지만 집단화될 경우에는 이기성을 보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 때 집단이 아닌 개인을 상정할 경우에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으로 동정심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정도밖에 들 수 없으니 개개인의 욕구의 최대한의 만족이라는 가의 개인의 역할 및 사회적 화합이라는 라의 개인의 역할보다 약하다.

나의 경우 개인은 사회로부터 기대 및 의무, 유산 및 빚 등을 물려받는 수동적 존재이므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다른 세 제시문과 비교하여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첫째로 라의 개인이 가의 개인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라의 개인의 경우 서로 뭉치는 시민적 우의가 없이는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미미하다. 반면 가는 개인이 서로 뭉칠 것 없이 스스로 완전히 합리적이다. 또한 라에서는 개인이 도덕적 개인과 비 도덕적 개인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에서처럼 모든 시민들이 화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가의 공평한 관망자가 이상적 존재라고 간주할 경우, 그는 실재하지 않으므로 가에서는 더 이상 개인이라는 존재를 찾을 수 없기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사라지게 된다는 둘째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순서는 라-다-나-가의 순서가 된다. 하지만 이 역시 옳지 못한 해석이다. 발문에 의하면 개인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나와 다의 순서에 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나의 개인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타인에게 이롭게 할 수 있다. 반면 다의 개인들은 뭉치면 이기심을 발휘하여 사회에 무한한 해악을 끼친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비교해야 할 것은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이다. 그것이 이로운 쪽이든, 해로운 쪽이든 그 방향은 중요치 않다. (1,156자)